

# 대기업 하반기 채용 '시동' NH농협銀·SK 등 인턴모집

**NH농협은행** 채용연계형 인턴채용  
**BGF리테일** 영업관리직군 인턴모집  
**SK네트웍스** 고객·사회 부문 인턴십  
**실리콘웍스** 학·석사 신입 수시채용

NH농협은행, SK네트웍스 등이 차례 인턴을 채용 중이다.

25일 잡코리아의 주요 기업 인턴사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2020년 채용연계형 인턴직원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디지털(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카드-디지털(웹/모바일, 간편결제 등) 각 부문이다.

공통자격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신규채용 자격사유가 없는 자, 5급 신규직원 채용(2020년 9월말 예정) 이후 계속근무가 가능한 자 등으로 세부 자격요건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 자기소개서 평가) ▲필기전형(인적성 평가, 직무능력·상식평가) ▲인턴전형(인턴 근무 평가, PT평가, 심층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오는 30일 18시까지 NH농협은행 채용연계형 인턴직원 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GF리테일 역시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모집직군은 영업관리 직군이며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인원(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인원, 학점 3.0 이상(4.5만점 기준), 2020년 8월~9월 초 사이 약 4주간 인턴사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인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접수, 인성검사, 1차면접, 인턴십(8월~9월 초, 4주)순으로 진행된다. 인턴십 우수 수료자에 한해 최종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사 지원은 오는 30일 13시까지 BGF리테

기업명 및 모집내용	마감
SK네트웍스 2020 SK네트웍스 채용연계형 인턴십	7월 7일
실리콘웍스 채용연계형 학·석사 신입인턴십 수시채용	7월 6일 17시
NH농협은행 2020년 채용연계형 인턴직원 채용	6월 30일 18시
비지프리에틸 BGF리테일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6월 30일 13시
NAVER Business Platform 2020년 HR 인턴사원 모집	6월 29일
11번가 2020년 인턴 채용(전환형)	6월 28일

자료/잡코리아

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SK네트웍스는 내달 7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DT(Data Science), 고객·사회(사업개발/마케팅영업) 부문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8~9월 인턴십 근무를 거쳐 10월 입사가 가능하다. 세부 자격요건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SKCT, 인터뷰, 인턴십, 신입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7월 7일까지 SK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리콘웍스는 학·석사 신입 인턴십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R&D(Digital Design, Firmware 등), Non-R&D(품질, 경영기획 등) 각 부문이다.

지원자격은 전 모집분야 학·석사 학위 기졸업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2020년 8~9월 중 인턴십 가능자, 당사 기준 영어 성적 보유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인턴십, 2차면접, 건강검진, 최종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지원은 내달 6일 17시까지 LG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한국산업기술대가 지난 24일 제캠퍼스 공학관에서 10개 기업체와 'EH기반 단기기술개발과제 및 Eng.SW Case study'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산업기술대, 10개 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EH기반 단기기술개발과제 협약

한국산업기술대는 지난 24일 제1캠 퍼스 공학관 C동에서 10개 기업체와 'EH기반 단기기술개발과제 및 Eng.SW Case study'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반월, 시화 스마트산단 제조업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산기대의 김응태 산학협력단장, 조병걸 스마트산단사업단장,

이종길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단장 등을 비롯해 수행 책임교수 10명과 참여기업 대표자 10명 등이 함께 했다.

참여기업은 ▲㈜엠패스 ▲㈜프론틱 ▲㈜동남 ▲경원사업(주) ▲아인텍(주) ▲대모엔지니어링(주) ▲㈜계파 ▲㈜비스로 ▲㈜메탈릭스 ▲택트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산기대는 기업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프로젝트를 수행을 통해 강의 중심교육을 탈피하고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과 연계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 대학가 “캠퍼스에 가보고 싶어요”

다수 대학, 계절학기 비대면 수업  
실습·실기 등 조건부 대면 허용도

일부 대학 수업료 인상에 학생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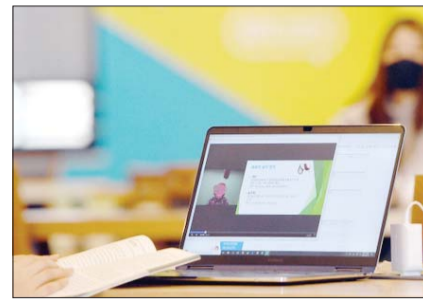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로 1학기를 마무리하는 대학 대다수가 여름 계절 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간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확정하고 이르면 6월 말 수업을 시작한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실험, 실습, 실기의 경우 대면이 허용된다.

계절학기는 보통 약 2~3주간의 일정으로 매주 5일을 강의실에서 2~3시간 수강해야 한다.

연세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고려대도 계절학기 수업 방식을 1학기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수강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결정했다. 다만 온·오프라인 병행을 조건으로 대면수업을



온라인 강의 듣는 학생 /뉴스시스

허용하고 수강인원 30명 이하 강의는 수강생 동의와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를 조건으로 대면 수업도 허용했다.

한양대는 계절학기 수업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원격수업 교과목이 대면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정규학과와 달리 학생동의를 따로 묻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희대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 대부분 대학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험·실습·실기강의 등 필요한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균관대·한국외대는 여름 계절학기 전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민대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축소했다. 대신 일별 수업 시간을 늘려 강의한다. 국민대 관계자는 “1학기 개강이 밀리면서 학사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

절학기 기간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 등 각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해 일부 대학들은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예측도 나오는 만큼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2학기에 우선 ‘중간고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원칙을 정하고 이후는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되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희대는 계절학기 수업료를 이번 2020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부터 학점당 8만9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2019학년도 등록금쟁쟁위원회 합의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지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수업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전쟁기념관,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마련

4개 존 구성, 15분 마다 영상 상영  
콜롬비아 참전용사 화상으로 연결

전쟁기념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휴관 중임에도, 25일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맞아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를 열었다.

이날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했다”면서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는 ▲사람, 서른여덟가지 이야기 ▲숫자, 그 너머의 사람 ▲이야기, 70년을 잇다 ▲새로운 시작, 평화 등으로 크게 4가지 존(ZONE)으로 구성됐다. 각 존에는 매 15분마다 대형 벽면을 통해 5분간 영상이 상영된다.

개막 후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23개의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전시 공정 타임랩스 등 특별한 영상 콘텐츠도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포스터 이미지 /전쟁기념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과 발맞추어 ‘꼬불꼬불 기지대탐험’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현재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온라인

전시 엿보기’를 서비스 하고, 개막 이벤트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용기, 지혜, 사랑, 힘에 대한 ‘최고의 생각’을 선정하여 기획전 미니 액자 등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8시에는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격려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대담(현지시간 6월 25일 저녁 6시)이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열린다. 이 대담에는 국방부장관, 보훈처장, 콜롬비아 대사, 전쟁기념관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콜롬비아 국방장관, 주콜롬비아대사,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연결된다.

이날 행사와 함께 콜롬비아 참전용사 힐베르토 디아스 벨라스코씨(87)가 전쟁 당시 직접 찍은 필름사진 152장을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이미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 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2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인하대-KT, 中소 정보통신기술력 강화 추진

제조공정 혁신·지능화 산학협력

인하대가 KT와 손잡고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력을 높여 제조혁신 발전 모델을 만든다.

인하대는 지난 24일 KT, 인천비전기업협회, 인천유망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인하대 본관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혁신과 지능화를 이뤄 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인하대의 강점인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주 무기 삼아 중소기업별 중장기 혁신 전략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어 5G, 에너지 절감, 협동 로봇과 같은 미래 핵심기술 공유로 경쟁력을 높인다.

KT는 스마트에너지, 재난·안전·보안, 미디어, 기업·공공가치 향상, 금융거래 등 5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현진 기자